

2022 교단총회 참관활동 정책제안 기자회견

“총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꿈꾸는가?”

| 유미호 센터장(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 이국진 목사(전주 예수비전교회)

| 최호윤 회계사(교회재정건강성운동)

2022. 9. 1. 오전 11시. 공간이제

교회개혁실천연대

■ 순서

■ 사회

이현주 사무국장 | 교회개혁실천연대

■ 모두 발언

남오성 공동대표 | 교회개혁실천연대

■ 발제

1) 유미호 센터장 |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탄소중립 기후교회’를 세우는 녹색총회 (5쪽)

2) 이국진 목사 | 전주 예수비전교회

여성안수와 예장합동교단 (13쪽)

3) 최호윤 회계사 | 교회재정건강성운동

교단연금은 수익자산이 아니다 (21쪽)

■ 질의응답

모두 발언

- 남오성 공동대표 (교회개혁실천연대)

교회개혁실천연대(개혁연대)가 주최하는 <2022 교단총회 참관활동 정책제안 기자회견>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02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는 개혁연대는 한국교회의 건강한 변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주요 교단의 총회를 즈음하여 정책을 제안하고 총회 현장 참관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올해 개혁연대는 <총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꿈꾸는가?>라는 주제를 걸고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ESG의 관점에서 교단 총회를 참관하려고 합니다.

ESG는 Environmental(생태), Social(사회), Governance(지배구조)의 영문 약자로서 지속가능한 경영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 요소로 2004년 UN보고서에 처음 사용된 개념입니다. E(생태)는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에 관한 주제이고, S(사회)는 인권, 성별 평등과 다양성, 지역사회 관계에 대한 내용이며, G(지배구조)는 민주적 조직구성,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에 관한 이슈입니다. ESG는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생존과 직결되는 비재무적 핵심가치들로서, 최근 들어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SG를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생태적 관심을 가지고, 사회에 기여하며, 건강한 지배구조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ESG는 교회도 지향해야 할 가치입니다. 개혁연대는 ESG의 관점으로 이번 총회를 참관하면서 각 영역마다 중점 주제를 배치했습니다. 첫째, E 생태 영역에 있어서는 총회가 과연 탄소중립 기후교회를 세우는 녹색총회인지를 두고 보려고 합니다.

둘째, S 사회 영역에 대해서는 여성 안수 문제에 대해 지켜볼 것입니다. 여성 안수는 교단 내 성별 불평등 문제인 동시에 중요한 사회 이슈이기도 합니다. 양성평등은 전 세계적인 보편 담론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는 아직도 고루한 문자주의적 해석을 빌미

로 아직도 여성에게 성직 안수를 거부하는 교단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는 교단 내 불평 등뿐만 아니라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선교적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3월, 예장합신 경기북노회가 여성 안수를 인정했다는 이유로 35년간 교단에 몸담고 은퇴한 목사를 면직한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변론을 맡고 MBC를 포함한 중앙 언론사들이 이를 보도한 것은 교단 내 여성 안수 문제가 이미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한 증거입니다. 이번 총회를 참관하면서 개혁연대는 교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즉각 여성 안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G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교단 연금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교단 연금 문제는 은퇴 목회자의 경제적 노후 보장에 대한 것으로만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자금 운용과 적절한 투자 여부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연금 문제는 공평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현재 교단 연금 제도는 많이 낸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낸 사람은 적게 받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세속적 논리일 뿐이며 교회가 지향해야 할 사랑과 평등의 논리가 아닙니다. 대형교회 목회자는 많이 내고 덜 받고, 소형교회 목회자는 적게 내더라도 더 받는 구조가 하나님 나라의 구조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총회에서 연금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려고 합니다.

이상 세 주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뒤이어 각 분야의 전문가들께서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번 총회는 한국교회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각 교단은 총회를 통해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교회의 사회적 사명을 완수하고, 올바른 지배구조를 세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탄소중립 기후교회’를 세우는 녹색총회

- 유미호 센터장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후 위기는 인류의 삶은 물론 창조세계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기후 변화는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물 종의 약 절반이 극지방이나 더 높은 곳으로 이동했는데, 머잖아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상승하면 육상 모든 동식물의 15%, 열대 산호초는 최대 90%가 사라지고 식량 안보도 위협받게 됩니다. 그 영향은 지금보다 더욱 불평등하게 나타날 것인데, 식량생산량 감소와 물부족, 거주지의 파괴로 이어져 난민을 양산되고 사회정치적 갈등도 증폭될 것입니다.

이에, 총회를 앞둔 각 교단이 회원 교회로 하여금 이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며 무엇을 하도록 할 것인지 고민하고 ‘탄소중립 기후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여기서, ‘탄소중립 기후교회’는 기후위기를 인정하고, 탄소중립의 목표를 세워 하나님이 모두에게 제공하신 풍성함을 골고루 나누는 일상과 사회를 만들어 가는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2021년 8월에 발표된 IPCC의 제6차 평가보고서의 제1 실무그룹 보고서에 의하면, 지금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인간의 행위에 있음이 ‘명백합니다(99~100%)’. 총회라면 회원 교회들이 이 위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견잡을 수 없이 지구 기온이 올라가 머잖은 미래에 이상기후, 해수면 상승, 빙하 유실을 막을 수 없다는 암울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의 위기의식은 얼마나 되는지 살펴 행동하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총연합이 의뢰하고, 지엠리서치가 진행한 ‘2022 한국교회 기후환경 인식 조사 (1,000여 명 대상,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협력)’에 의하면, 요즘 사람들은 대다수 기독교인들, 약 99%나 되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 접어들었거나 특단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당장은 아니지만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기후환경 운동을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선교 중 하나라고 보았습니

다(목회자는 47.1%, 성도들은 47.1%). 비록 하나님의 선교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보전하는 것은 신앙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라고 답한 이들까지 하면 목회자는 95.2%, 성도들은 86.8%가 기후.환경문제(탄소중립)를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침묵해서도 안 되고, 적당히 실천하면서 만족하거나 책임 전가하는 일을 반복하도록 해서도 안 될 선교과제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던’ 순간조차도 ‘지키고 돌보라’ 하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주 선포하는 설교로 보면, 기후환경에 관한 이야기가 별로 전해지고 있지 않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위의 같은 설문조사에서, 요즘 기후환경에 대해 설교한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에, 목회자 중 27.3%만이 그렇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설교하지 못한 이유를 보면, 설교에 적합한 주제가 아녀서라기보다 기후환경에 대한 지식/정보의 부족, 그리고 관련 성경본문이나 설교 자료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절박한 위기의식을 가지고도, 지구와 지구 상 생명에게 지우고 있는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있지 못한 상황을 생각하면, 목회자들이 설교를 통해 창조의 부르심은 물론 피조물의 탄식소리를 들으며 온전히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교회 내 신앙공동체 안에서 삶을 바로 세우고 지구 회복력을 지켜낼 수 있도록 신앙적 가치를 한 가지씩 떠올리며 분별하게 하는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더 절실합니다. 그것이 지금의 위기와 그 속에서 들려오는 피조물의 소리를 경청하게 하여 자기성찰적 사회적 행동을 하게 도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25가지 신앙적 가치단어에 대한 생태살림 에세이, "지구정원사 가치 사전", 동연 출판, 2022 참고)

반가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달리 ‘녹색교회’를 향해 움직이는 교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이들 교회들이 ‘녹색교회’에 관심을 두는 것은 단순히 위기만의 문제라기보다 복음의 본질과 복의 근원에 대한 깊이 있는 그리움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과 교회를 세우신 분으로 고백하며, 구속의 은총 이전에 창조의 은총이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곳이라 할 것입니다. 교회의 본바탕, 근원이 된 창조의 빛을 기억해내고 기후위기 시대에 응답하게 할 때에, 교회들은 푸르러지고 세상은 더 아름답게 회복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기후 위기를 인식하고 불안감에 관심을 보이는 곳들도 있습니다. 단순히 위기를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그 자체로 희망의 한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교회를 위해 총회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위기감이 탄소배출의 감축으로 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회를 시작으로 교회들마다 자발적 탄소중립의 목표를 수립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선언을 하게 해야 합니다. "탄소중립 기후교회(혹은 "탄소제로 녹색교회")를 선언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바탕을 의식함으로 세상에 녹색의 빛을 드러내게 하고, 교회가 성도들이 피조물들의 탄식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게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를 늦출 탄소중립은 결코 혼자 할 수 없고 공동체가 함께 해야만 커다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교회가 창조세계를 함께 돌보아야 할 교회임을 안다면, 교회 규모에 상관없이 위기에 처한 지구가 하나님의 세상임을 함께 믿고 함께 증언하게 해야 합니다. 만약 증언하고 또 돌보아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면, 그냥 녹색교회, 에코교회, 탄소제로 녹색교회, 탄소중립 기후교회임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선언을 시작으로, 배출된 탄소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자가진단 활동을 전개한다면 각자각자가 해야 할 일을 알게 되고 이미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강력한 실천 동기를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기독교계의 목소리를 모아 절박한 심정으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행동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 우리는 형제자매 피조물들을 존중하고 보호하므로 창조세계를 보전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창조보전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회개하며 기복신앙에 취한 채 영혼구원만을 강조하고 이 땅의 창조질서를 회복하고 보전하는 일에는 무관심했던 지난날의 죄악을 참회합니다 ...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고 요구하며 결단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 탄소중립 선언, 2021. 5>

“창조세계 돌봄 곧 기후위기 시대의 '탄소중립'은 태초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요, 이 시대의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할 본질적 신앙과제이다. 또한 탄소중립을 이루어가는 '기후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교회, 곧 '녹색교회'로서의 본질을 시대적으로 드러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모든 만물이 다 하

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인정한다(시 50:10-1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인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 개인과 사회와 자연 만물을 포함하는 우주적인 구원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은 단순히 영혼만을 새롭게 하시는 영이 아니라 자연을 포함한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창조주의 영임을 함께 고백한다.” <한국교회생명신학포럼, 2022.6.22.>

이 같은 선언을 준비함에 있어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총회가 행사 그 자체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일입니다. 총회가 이번 행사는 물론 총회 건물과 각부서 활동에서 실질적으로 줄이는 모습을 보일 때에 회원 교회 역시 창조세계를 ‘지키고 돌보아야 하는’ 제 몫을 힘있게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녹색총회(행사)를 위한 제안>

1. 녹색총회를 위한 사전준비(사전 안내 및 자원봉사자 교육)
2. 회의 시 사용하는 모든 종이는 재생지를 쓰되, 주요 안건 외에는 PPT 적극 활용
3. 회의장 안에서는 일회용 대신 자기 컵(텀블러) 사용
4. 총회기간 동안 교통 수단은 대중교통을 우선하도록 광고(자가용 운행시 카풀하며 탄소발자국 지우기 권장)
5. 총회기간 내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엘리베이터 사용 자제(3층 이하 계단 이용)

이 같은 녹색 총회를 치루며 ‘탄소중립’을 향한 실천선언을 한 후에는 차근차근 회원 교회들이 구체적 실천목표를 세워 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그를 나누는 워크숍을 개최하면 좋습니다. ‘탄소중립’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누구와 무엇을 할지를 분명하게 하는 일입니다. 만약 실천(탄소중립)의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다면 그 실천은 막연하고 성취감 또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회는 물론 교회마다 책임져야 할 탄소 배출량이 있습니다. 전력소모량과 온수 및 난방 연료의 종류와 사용량, 각 교통수단의 운행 거리, 쓰레기 배출량 등을 살펴, 그를 산출하고 출처를 분석하는 일을 한다면 조금 더 탄소중립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2022년 6개 지역 워크숍 개최됨)

게다가 성도들 간에 기후위기가 자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나와 우리의 삶이 기후위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나와 이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다음세대는 물론 지구상 수많은 생명을 살고 살리는 살림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지를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목표를 세우도록 안내한다

면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셨음에 감사하며, 혼자가 아니라 신앙공동체 차원에서 지금의 기후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여 기후재앙을 막아내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세운다면, 모두의 풍성한 삶을 위한 ‘탄소중립 기후교회’, 탄소중립을 이루는 지역사회로의 전환은 시작될 것입니다. 교회가 생태적 전환도시로의 전환을 이루는 산실이 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국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세 제도와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정책 등을 확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탄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2050 탄소중립’을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뿐만 아니라 제로에너지 건물, 그린 리모델링 확대 실천 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책의 시행이 실질적인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으로 이어지려면, 중앙정부, 전문가 위주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산업계, 미래세대, 노동자, 농민 등 사회 전 계층이 참여하는 협치(거버넌스)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는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설문 결과의 결과를 보면, 탄소중립이나 녹색교회에 대해 관심을 둔 교회들이 아직 지역사회와의 협력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우선 협력 대상이 지역사회와 교회 구성원이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이는 긍정적 현상으로 회원교회들이 현재 위치해있는 지역사회가 어떤 탄소중립의 목표를 세우고 이행해가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교회가 ‘탄소중립 기후교회’로서 바로 서려면, 지역의 탄소중립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전략으로 다양한 주체들과 실현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는지 살피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교회를 중심으로 마을 숲을 조성하고, 교회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할 뿐 아니라 직접 생산하고, 신축 건물은 제로 에너지 건물로 짓고, 또 노후화된 건물은 효율화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을 이루는 마을교회, 옥상이나 마당 한 칸에 텃밭이나 정원을 만들어 돌보는 마을교회, 걷고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을 애용하며 그것이 더 편안한 마을을 만들어 가는 교회여야 합니다. 특별히 마을 안의 기후 약자들을 찾아 적절히 배려하는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이 같은 탄소중립의 활동은 지금의 교회들이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회복탄력성을 기르

는 연습을 할 수 있게 도울 것입니다. 이미 적잖은 교회들이 도시 전환 운동 차원에서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존의 단위가 전체 생태계이듯, 탄력성의 단위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이니, 교회들이 기후 위기의 도전 앞에서 더욱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더욱 철저하게 대응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총회가 회원 교회과 더불어, 기후위기에 맞서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탄소중립을 이뤄갈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일곱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는, '배우고 연결하기'입니다. 탄소감각을 살려 말씀을 다시 묵상한하면서,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기후 위기에 즉시 영향을 받아 무너질 수 있는 기후 약자를 위해 기도하고 또 돌보아야 합니다. 이는 본격적 기후 행동을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거대한 탄소발자국을 남기고 있는지 살피게 할 것입니다.

둘째는, '탄소발자국 줄이기'입니다. 전등 끄기나 실내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에너지효율 등급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며, 가능한 대로 기후 내성을 갖춘 자재로 그린 리모델링을 하도록 하여 에너지 낭비로 인한 탄소발자국을 줄이게 해야 합니다.

셋째는, '쓰레기 줄이기'입니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포장지, 일회용 배달음식 용기 등에서 멀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을 재사용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제로웨이스트숍에서 쇼핑하고, 지역의 상점들이 지속가능한 매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동하게 하면 됩니다.

넷째는, '교통/운송에 변화주기'입니다. 우리가 이동하는 것이나 물품이 배달되는 것 모두 탄소를 배출합니다. 다행히 최근 몇 년 동안 자전거 도로가 보급되고, 보행자를 위한 인도 개선, 대중교통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만큼, 걷거나 자전거를 타고 대중교통으로의 이동을 적극 권합니다. 그만큼 배기가스도 줄이고, 기름 값도 절약하고, 건강도 개선해갑니다. 만약 차가 꼭 필요하다면 전기차로의 전환을 권하며 전기차충전소의 설치도 적극 고려합니다.

다섯째는, '구조적 변화를 위해 목소리 내기'입니다. 교통/운송, 플라스틱, 동식물들의 서식지 또는 에너지 분야 모두에서 변화를 가져오려면, 개인들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의 전면적인 구조적 변화 없이는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마음으로 기후 증인이 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이들을 움직여, 탄소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기후재해를 피하는 과감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섯째는, '전기/전력을 돌아보고 전환하기'입니다. 최근 수십 년간 재생에너지의 생산이 확장되고 있는데, 교회도 이 일이 더욱 확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것이 가장 큰 에너지 자원이자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것이니, 교회가 앞장서 교회 건물에서의 전기 사용량을 줄이려 애써야 합니다. 오래된 건물일 경우 건물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참여하거나 신축의 경우 녹색건축 인증을 받아 애당초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 탄소배출을 줄여야 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옥상이나 벽면, 주차장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100%로 살아가는 'RE100'교회가 되기를 제로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해도 발생시킨 탄소를 '0'으로 만들기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남겨진 탄소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교회 안팎에 숲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숲이 교회를 오가는 이들로 창조의 기운을 느끼게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들에 '참 좋다'고 감탄하게 하리라 생각합니다. 더불어 자동차를 멀리할 수 있도록 '차 없는 주일'을 지키면서, 세상과 교회를 걸거나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오가도록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실천의 깊이가 나날이 더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전 세계 온실가스의 상당량이 음식에서 나오기에, 육식을 줄이고 지역에서 나는 농산물을 필요만큼 차려 남김없이 먹는 일에 힘쓰는 것도 필요합니다. 공동식사에 변화를 주고, 성도들이 밥상을 바꾸어 자신의 병든 몸과 마음, 영혼을 살려가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교회가 하는 실천의 목록은 끝없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의 내용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연결되어 실천하느냐'입니다. 신앙공동체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가운데 날마다 기후 이야기를 해나간다면, 그래서 기후 위기의 풍랑을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능히 건너게 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황은 더욱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라는 도전 앞에서 신앙인으로서 지녀야 할 가치와 그에 준하는 행동을 충분히 상상하며 행동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사도 행전 1:8)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탄식 속에 이 땅 지구를 품고 치유하고 계신 성령님이 이미 들어와 계셔서, 땅끝까지 만물의 화해자 되신 주님을 증언할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혼자로는 지금의 기후위기를 넘어서기 어렵습니다. 교회라면 말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이 땅을 치유해가시는 주님의 영에 이끌리어 실천하는 주님의 증인 된 이들, ‘기후 증인 공동체’를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교단 총회를 시작으로 기후(환경)위원회를 만들어 각각의 회원교회들이 각자 자신은 물론 교회의 탄소발자국을 확인하고 줄여나갈 뿐아니라 기후위기에 즉시 영향을 받아 무너지고 있는 기후 약자들을 돌보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특히 청하는 것은, 총회가 지금의 기후 위협이 미래세대에 가장 크게 미칠 거란 점입니다. 현재 전 세계 22억의 어린이의 절반이 기후변화로 인한 치명적 위협 앞에 놓여 있습니다(UNEP). 게다가 기후가 불안정해짐에 따라 커 가는 두려움과 절망, 우울함은 아이들과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위기 그 자체도 문제지만, 어른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말하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로 신앙을 전수하는 데 있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들 유·청소년과 젊은이들이 하는 기후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기후환경 교육과 실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그들이 기후 불안 가운데 거룩한 부담감으로 하는 기후 행동이야말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지고 사과하며 행동해야 하는지 일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그들과 더불어 기후위기시대의 도전에 힘차게 응답해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여성 안수와 예장합동교단

- 이국진 목사 (전주 예수비전교회)

1. 여성 안수에 대한 교단 내 기류 변화

여성에게 안수하여 성직을 부여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상 최근의 일이다. 가톨릭의 경우 남성 독신 사제만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성에게 사제의 성직을 부여하지는 움직임은 아직 제기된 적이 없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면서, 성직자의 독신주의가 무너졌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성에게 성직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제기된 바 없었다. 여성에게 성직을 부여하는 것은 주로 진보적인 교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데,¹⁾ 이제는 성경을 무오하다고 믿고 성경의 가르침을 신앙과 행위의 최고의 기준으로 삼는 보수적인 교단에서도 여성에게 안수하여 성직을 부여하는 일이 확대되고 있다.²⁾

사회는 남녀평등이 강조되고, 여성의 역할이 강조되는 등, 여권이 신장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교회 내에서는 여전히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만을 감당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많은 여성 사역자들이 타 교단으로 옮겨가는 등 교단의 장래가 밝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민이 있다. 교회 내에는 여성 성도들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데, 성직자는 남성 위주인 것도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는 고민도 있다.

1) 여성 목사를 인정하는 교단으로는 기감(1955), 기장(1974), 예장통합(1994), 기성(2004), 예성(2003), 순복음(2007), 백석(2009), 기침(2013)이 있다.

2) 예를 들면, 백석교단은 2009년 9월 21일부터 24일까지 수원 명성교회에서 모인 교단 총회에서 여성에게 안수하는 안을 통과시켰고, 그 결과 2014년 안양노회에서 6명의 여성에게 안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보수적인 교단으로는 처음으로 여성 안수를 시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보수적인 개혁주의 신학을 표방하는 CRC 교단에서는 수년간의 논의 끝에 1992년에는 여성에게도 안수할 수 있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다. 고신 교단과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는 네덜란드 자유 개혁교회(소위 31조파)도 2017년에 여성안수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9년 5월 13-15일에 실시된 교단 목사 장로 기도회에서의 설문조사는 아주 흥미롭다. 목사 340명, 장로 228명이 참여하여 그 가운데 88%가 여성 군목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했고, 총신 출신 여성 인재들이 다른 교단으로 유출되는 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81.1%가 응답했으며, 여성 사역자가 공 예배에서 설교하는 것에 대해서 84.1%가 긍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았고, 82.6%가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내어놓았다.³⁾ 이러한 답변은 2015년에 이루어진 기독교신문 지령 2000호 기념 설문조사의 결과(여성안수에 50.6%가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설문결과)보다 훨씬 더 진보된 것이다.⁴⁾ 이미 교단 내에서는 여성에게 안수를 하자는 의견이 상당히 많다. 교단 내에서 여성 안수에 대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이러한 기류의 변화는 교단의 조직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박형룡 박사의 견해와 상반된 것이어서 놀라운 일이다. 박형룡 박사는 여성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할 수는 있으나, 법적인 교권을 가지고 가르치며 치리하는 것은 온전히 남성에게만 주어진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이다.⁵⁾

총회에서는 꾸준히 여성 사역자와 관련된 현의안들이 제출되고 있다. 다음은 여성과 관련된 현의안들이 제출된 목록이다.

- **96회 총회(2011년):** 여성목사 및 장로 임직 청원의 건(전북노회 현의), 여교역자들의 노회 준회원 가입의 건(중앙노회 현의), 총회GMS 여성 선교사 성례 및 세례 시행 허락 청원의 건(평서노회 현의-해외에서만 실행하는 것으로 결의)
- **97회 총회(2012년):** 여성선교사 및 여성군목에 대한 안수연구위원회 조직의 건(남울산노회 현의)
- **102회 총회(2017년):** GMS 파송 여성선교사 3년 1차 세례집례 허용의 건(동안주노회), 여성 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산노회 등 4개 노회 현의)
- **103회 총회(2018년):** 여성 군선교사 파송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서울남노회 현의),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과 사역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청원의 건(수도노회 현의)

3) 김진영, “여성 목사 인정 않는 합동, 인식 바뀌나?” <크리스천투데이> (2019.5.29.)
<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22815>

4) 박용미, “[지령 2000호 기념 목회자 의식조사] 여성안수 금지” <기독교신문> (2015.2.26.)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11>

5) 박형룡, <교회론> (개혁주의출판사, 2017), 147-148.

- **104회 총회(2019년):** 여성사역자지위향상, 여성군선교사파송및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의 건, 여성 강도권(여성 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의 건. 여성 사역자 지위 향상을 위해 총신신대원 입학시 반드시 노회 추천서를 받게 하고, 졸업 후 강도사고시 응시토록 하여 강도권을 허락하지는 헌의.
- **105회 총회(2020년):** 여성사역자(총신신대원 졸업자)에게 강도권 부여를 위한의 건(진주노회 헌의),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 및 사역개발위원회 상설화의 건(진주노회 헌의)
- **106회 총회(2021년):** 농어촌교회 여성 장로 안수 허락의 건 (김천노회 헌의), 총신 신대원 여성 졸업자 목사 안수 허락의 건 (김천노회 헌의), 여성사역자 지위향상과 사역개발의 건(강중노회 등 2개 노회 헌의)

이러한 헌의안이 제출되었다고 해서 본회에서 통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96회 총회(2011년)에서 해외 오지에 있는 여성 선교사들에 한하여 성례권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의는 노회들의 의견을 묻는 후속 조치가 따르지 않아 유아무야 되었다.⁶⁾ 그러다가 98회 총회(2013년)에서 총회세계선교회(GMS·박무용 이사장)의 청원에 따라 여성 선교사의 성례권이 부여되었다. 물론 이 결의는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3년간 임시로 허락하는 것이었다.⁷⁾ 그러다가 102회 총회(2017년)의 헌의를 통해 구성된 여성사역자지위향상및사역개발위원회(고영기 위원장)이 103회 총회(2018년)에서 GMS(총회세계선교회) 독신 여성 선교사, 홀사모 선교사 성례권 계속 시행을 청원하여 허락을 받았다.⁸⁾ 임시적으로 부여되었던 성례권을 계속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허락은 실제적으로 목사로 임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해외 오지의 경우라는 단서가 있기는 하지만, 여성 선교사로 하여금 목사 고유의 직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엄청난 변화였다. 하지만 여성에게 강도권을 부여하거나 목사로 안수하지는 건은 별다른 토의 없이 기각되었다.

6) 박용미, “교단 여성 선교사 성례권 어디까지 왔나” <기독신문> (2013.4.15.)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35>

7) 구권호, “예장합동, 여 선교사 성례권 임시 허용” <뉴스앤조이> (2013.10.11.)

<http://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5353>

8) 최승현, “[합동6] 여성 선교사 성례권 부여” <뉴스앤조이> (2018.9.11.)

<https://www.newsnoj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627>

눈여겨 볼 것은 104회 신학부(부장: 고창덕 목사)에서 여성 강도권과 안수 문제에 대하여 심도있게 논의를 하여 105회 총회에 보고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04회 총회 헌의안으로 올라온 여성 강도권(여성 안수)에 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 정리의 건을 신학부가 수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연구자들 가운데 3명의 연구자는 여성에게 강도권을 주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내놓았다. 이희성 교수는 “여성 사역자들이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을 제한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하였고,⁹⁾ 유창형 교수도 자격이 있는 여성 사역자에게 목사로 안수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강도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였으며,¹⁰⁾ 이국진 목사는 여성으로 하여금 침묵하라고 했던 성경의 구절은 당시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주어진 일시적인 금령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보고하였다.¹¹⁾ 하지만 조호형 교수¹²⁾와 임종구 목사¹³⁾는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을 주거나 안수를 하여 목사로 임직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연구하여 발표하였다. 이에 신학부는 여성 강도권에 관하여 연구자들 사이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보고하였다.¹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여성에게 안수하는 것과 강도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하면서, 다만 여성 사역자가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문제는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에 따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¹⁵⁾ 상반된 의견들이 제출되었지만, 기존의 입장으로 보고해버린 셈이다. 그러기에 총회 헌장에서는 아무런 논란이 없이 지나가 버렸다.

105회 총회 신학부(부장: 신현철 목사)에서도 여성 강도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번에는 박형대,¹⁶⁾ 정승원¹⁷⁾ 교수와 임경근¹⁸⁾ 신현철¹⁹⁾ 목사가 연구하였는데, 모두 기존

9)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16; 이희성, “구약의 관점에서 본 여성 사역자의 지위”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0), 18-39.

10)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19; 유창형, “여성 강도권과 여성안수에 관한 신학적 분석과 현실적 대안”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0), 111-137.

11)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42; 이국진, “여성 안수와 관련된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0), 63-110.

12)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17; 조호형, “디모데전서 2:8-15에 나타난 특수성과 보편성에 대한 고찰”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0), 40-62.

13)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20-121; 임종구, “여성목사 안수에 대한 개혁신학의 입장”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0), 138-205.

14)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42.

15)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42.

16) 박형대, “성경에 소개된 여성 사역자에 대한 칼뱅의 입장”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

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연구결과 만을 내어놓았다. 신학부에서 어떤 연구자들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이미 답은 정해진 셈이었다.

하지만 교단 내 현장에서는 꾸준하게 여성에게 안수할 필요성들이 제기되고 있다. 매년 총회 현장에서는 여성에게도 안수하여 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²⁰⁾ 최근 총신대학교 재단이사이며 중견 목회자인 이광우 목사(전주 열린문교회)는 SNS를 통해 교단 내에서 여성 안수를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는 곧 이어 뉴스앤조이에 보도되고,²¹⁾ 또한 CBS를 통해 인터뷰까지 실렸다.²²⁾ 교단 내의 기류는 많이 변했다.

2. 여성 안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는 요인들

이렇게 교단 내에서 여성 안수에 대한 기류 변화가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 주변의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변화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 수 있다. 첫째, 이미 많은 교단이 여성 안수를 실시하고 있다. 일찌감치 여성 안수를 실시한 기감²³⁾과 기장에 이어서 예성, 순복음, 통합, 백석, 기침, 합동개혁, 예장 중앙, 예장 합동중앙, 예장 개혁총연, 피어선, 구세군, 독립교회 연합회에서도 여성 안수를 실시하여 여성 목회

로회총회 신학부, 2021), 16-36.

17) 정승원, “여성의 목사 안수 및 강도권”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1), 170-204.

18) 임경근, “여성 사역자에게 강도권 부여, 가능한가”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1), 110-169.

19) 신현철, “강도권에 관한 교회법신학의 이해와 여성 강도권 부여의 타당성 연구” [개혁신학과 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신학부, 2021), 37-109.

20) 최승헌, “[합동1] “여성 안수 허하라” 교단 안팎 요구에도, 104회 총회 현의안 전무” <뉴스앤조이> (2019.9.23.)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25207>; 최승헌, “[합동1] 여성 안수 요구 외면하는 총대들” <뉴스앤조이> (2018.9.1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588>; 최승헌, “[합동9] 총신 여동문회 “여성 안수 허락하라.” <뉴스앤조이> (2017.9.20.)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3286>; 구권효, “[합동18] 여성 안수, 또 기각” <뉴스앤조이> (2012.9.21.)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192097>; 유연석, “[합동 3] 여성 안수를 허락해 주세요” <뉴스앤조이> (2010.9.28.)

<http://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2402>

21) 이광우, “여성 목사 안수는 비성경적인가?” <뉴스앤조이> (2022.7.29.)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4586>.

22) CBS크리스천노컷뉴스, “[파워인터뷰] 전주열린문교회 이광우 목사” (2022.8.17.)

<https://youtu.be/qF9XHWoKU3c>

23) 기독교 감리회는 1931년에 첫 여성 목사를 배출하였다.

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다. 2019년 2월 현재 여성 목사가 1만 명이 된다고 한다.²⁴⁾ 그래서 기독교원의 집회에서는 여성 목사들이 주강사로 등장하는 사례가 많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회 담임목사로 여성 목회자들이 등장하였다.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독립)와 빛의 자녀 교회 김형민 목사(기침)가 바로 그들이다. 여성 목사가 예장 개혁 총연 교단의 총회장이 되기도 했다. 그 주인공은 정상업 은빛교회 목사이다.²⁵⁾ 이미 여성 목사는 자연스럽게 우리 주변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1세기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것이 아주 신기한 현상이었지만 점차 당연시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여성 목회자들이 복음을 아주 신실하게 전하고 있으며 그들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여성 목사에 대한 관점이 변해가고 있다.

둘째, 여성 교역자들의 교단 이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는 남성보다 여성 성도의 숫자가 더 많고 신앙적인 열정도 더 많다. 그리고 이들 중에는 주의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자들도 많다. 그런데 교단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지 않아서 결국 여성 목사를 허용하고 있는 다른 교단으로 이탈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총신 신학대학원에서 수학한 여성 신학도들 가운데 18%가 합동교단을 떠나 다른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²⁶⁾

셋째, 남성 신학생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한때 신학 대학원의 경쟁률이 아주 높아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재수, 삼수 또는 몇 해를 다시 지원해야만 했던 시절이 있었다. 예를 들어, 2003년 11월의 입시 경쟁률은 353명 정원에 974명이 지원하여 3.1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바 있다.²⁷⁾ 이것은 총회 신학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제외한 숫자이니, 그해 신학 지망생의 숫자는 정말 많았었다. 하지만 현재는 경쟁률이 줄어서 2019년의 경우 393명 선발에 495명이 지원해 1.26대 1의 경쟁률로 하락해 버렸다.²⁸⁾ 결국 전국 교회가 젊은 목사들을 구하기 어려운 목회자 수급의 문제까지 대

24) 유명대, “여목사 1만명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국민일보> (2019.2.18.)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061340&code=23111212>

25) 유명대, “여목사 1만명시대… 여전한 유리천장”

26) 김진영, “총신 신대원 女 졸업생 18%, 예장 합동 떠나 목사 돼” <기독일보> (2022.7.26.)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17229>

27) 이길환, “총신신대원 경쟁률 높아” <기독신문> (2003.11.17.)

<http://www.kido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294>

28) 조수민, “신대원 경쟁률 갈수록 하락” <노컷뉴스> (2019.12.22.)

<https://www.nocutnews.co.kr/news/5262623>

두되는 실정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교회가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다. 목회자 수급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여성 목사의 배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넷째, 이미 여성 사역자들이 안수만 받지 않았지 가르치고 설교하는 일들이 교단 내 교회들에서 벌어지고 있다. 사랑의 교회에서는 여성 전도사가 제자훈련의 총책임을 맡아 남자 목사들을 가르쳐 왔다. 교단 내 교회에서 타교단의 여성 목사를 비롯해서 여성 전도사, 여성 선교사를 설교자로 예배 또는 부흥회를 진행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 교단에서 여성 목사들이 없을 뿐이지, 실제로는 여성 사역자들이 교단 내에서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하는 일들을 해오면서도 아무런 거부감이 없이 묵인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여성 안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든 요인들로 작용했고, 2019년의 조사에서 88%의 응답자들이 여성 안수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한 것이다.

3. 여성 안수에 관한 성경적 신학적 토론이 열려 있어야

여성 안수에 대하여 긍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단 내에는 부정적인 반발 또한 적지 않다. 임종구 목사가 신학부 수임 연구들 통해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것은 목사 임직 때 했던 서약을 파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는데,²⁹⁾ 소재열 목사도 최근 이미 여성 안수의 문제는 교단의 헌법과 신조에서 종결된 사항이며, 다시 논쟁을 삼는 것은 교리적인 질서를 해체하려는 것이기에, 교단 내에서는 불가하고 교단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³⁰⁾ 여러 목회자들에 대해서 대부분 이단 판정을 내린 바 있는 정이철 목사는 “여성안수의 문제는 사탄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고도의 술책”이라고 하면서, 이광우 목사를 향해 “세상을 위한 교회를 추구하는 타락한 합동목사”라고 비난하였다.³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다. 왜냐하면 서로 상반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성경을 최고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따를

29) 신학부, “수임 안전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21.

30) 소재열, “여성안수 금지, 교단헌법, 교리적 입장 ‘이미 종결된 사항이다’ 리포드뉴스 (2022.8.2.) <http://www.reformednews.co.kr/10209>

31) 정이철, “이광우(총신대 이사)는 세상을 위한 교회를 추구하는 타락한 합동목사” <바른믿음> (2022.8.2.) <https://www.good-faith.net/news/articleView.html?idxno=2664>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있을 때, 과연 어떤 해석이 옳은지 열린 대화를 통해서 성경을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하는 길로 나간다면 결국 어떤 방식이든 합일에 이를 수 있다.

신학부는 105회 총회에서 보고하면서 연구자들 사이에 분명한 의견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할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³²⁾ 그런데 그러한 제안에 따라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다. 심도 있는 연구를 하려면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연구 결과들을 놓고 토론하고 공청회를 하고 격렬한 논쟁을 통해서 무엇이 바른 해석인지를 따져야 한다.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들을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입장에 있는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사실은 105회 총회에서 이러한 신학부의 보고를 받고서 후속 조치를 심도 있게 결정 해주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시간적으로 충분히 논의할 수 없었다. 따라서 총회가 움직이려면 이는 다시 노회를 통해 헌의가 들어와야 한다. 단순히 여성에게 안수 하거나 강도권을 부여하라는 헌의는 별다른 논의 없이 기각될 가능성이 많다. 그게 아니라 여성 안수 및 강도권에 대한 연구를 찬반 양쪽의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게 진행하고 세미나와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헌의가 되어야 한다. 1년 만에 끝낼 게 아니라, 시간을 여유 있게 주고 연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성경의 가르침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고(여성안수 반대론자의 주장), 정 반대로 과거에 시대의 조류에 따라 성경의 가르침을 제대로 잘 이해하지 못했었는데 이제야 비로소 성경의 가르침을 볼 수 있게 된 가능성도 있다(여성안수 찬성론자의 주장). 무엇이 맞는지는 서로 머리를 맞대어 논의해보아야 한다.

32) 신학부, “수임 안건 신학부 최종보고” <105회 총회 보고서>, 142.

교단연금은 수익자산이 아니다

- 최호윤 회계사 (교회재정건강성운동)

I. 들어가는 글

다가오는 교단별 총회를 앞두고 연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해져가는 상황에서 교단별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고민한다는 기사들이 보인다¹⁾

현재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면 통합연금재단 경우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고 다른 교단의 경우도 예상치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를 보완하려고 향후 연금 지급액을 낮추려는 시도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은퇴목회자들의 반발을 일으킨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위기상황이다.

고민의 핵심은 목회자들의 노후 대비용으로 지급할 재원이 부족하니 a) 어떻게 하면 운용수익율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질문과 b) 보유한 재산으로 계속 기금을 유지하려면 지급하는 연금액을 낮추어야 하는가 하는 고민으로 압축된다.

재원을 운용하는 효율성을 높인다는 첫번째 질문에 동의는 하지만 교단 연금이 일반 금융자산과 다른 특이한 수익율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생기고, 두번째 질문은 목회자 노후를 대비하자는 연금재단(은급재단)의 설립취지를 포기한다는 점에서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관점이다.

1) 경제 위기 내몰리는 목회자 생계대책 마련될까?

(<http://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70596>)

예장통합, 은퇴 목회자 연금 지급률 15% 삭감 추진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57838&code=23111211&cp=du>)

목회자들의 노후대책 일환으로 8개교단이 연금재단(또는 은급재단)을 설립하였다. 교단이 설립을 주도하고 목회자가 구성원인 연금재단이 일반 사회의 사적 연금 구조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 그리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연금운용 재원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부담해야 하는가? 연금 자산 운용 과정과 투자 대상 선택에 성경적 가치관이 기준이 되는가?

II. 연금재단의 재원

교단연금재단이 수령하거나 수령할 수 있는 수입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① 가입자인 목회자 개인이 부담하는 금액
- ② 교회가 부담하는 금액
- ③ 교단 본부(또는 노회) 예산의 일정금액
- ④ 교단 산하 조직 수입금액의 일정금액
- ⑤ 일반 출연금(기부금)

1 일반 금융상품 대비 연금상품의 수익률

목회자 개인이 연금재단의 재원을 부담하는 경우는 전적으로 불입한 연금의 수익율이 중요한 운용기준이 된다.

가) 금융자산 수익율 차이

금융자산의 미래가치는 물가인상율에 비례해서 증가 하므로 자산의 명목가치는 증가 하지만 실질가치는 차이가 없다. 금융자산을 운용하는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기법을 사용하여 실질가치가 감소할 위험은 감소시키고 수익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품을 운용하고, 조금이라도 많은 수익율을 제공하는 금융상품 조합을 구상하는 것이 일반 금융시장의 모습이다. 자본 속성은 조금이라도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찾아 이동하게 된다.

수익(revenue)과 위험(risk)이라는 두가지 상충되는 요소로 형성되는 재정거래(arbitrage) 특성상 비정상적인 투기 자본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시장에서 위험에 대

한 포트폴리오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특정한 금융상품이 다른 상품에 비해 월등한 수익률을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금으로 불입하거나 수익형 펀드에 가입하는 일반 금융상품과 비교할 때 연금 자산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높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나) 가입자 입장에서 본 연금 수익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체제하에서 많이 불입하면 많은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적게 불입하면 적게 수령한다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벗어난 금융상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인이 불입한 금액에 비례한 수익율의 범위내에서만 미래 지출을 대비하게 되며, 이는 현재의 소득이 높은 사람만이 미래를 여유있게 준비할 수 있으며, 현재가 어려운 사람은 미래도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본질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보완책으로 공적 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불입액에는 사용자가 불입하는 부담금이 있어 직장 가입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불입한 금액의 100%의 추가 금액을 수익으로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은 사적연금이 본인의 불입액만을 미래 연금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점과 다르다는 중요한 차이 요소다.

그래서 복지적 성격이 가미된 공적연금제도를 노후 대책의 기초수단으로 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인의 사적연금으로 보충하는 것이 현재 일반 사회의 연금 제도다.

2. 수익자 부담 기준 자원조달 방식의 문제점

목회자가 부담하거나, 교회가 부담하거나, 교단 조직의 수입으로 연금재원을 충당하는 경우는 자원 충당의 실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운용방식을 교단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목회자 개인과 교회의 부담만으로 재원을 조달하는 경우 교단 총회에서 결정한다고 당사자인 목회자와 교회가 필요한 재원을 부담할 수 있느냐는 전혀 별개의 문

제다. 교회의 수입으로 목회자의 사례비/급여가 결정되는 상황에서 교회의 수입이 적은 미자립 중소형 교회와 해당 교회 소속 목회자가 여유있게 연금 불입액을 부담할 수 있으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음이 현실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6년 12월에 연구 발표한 ‘성직자 노후보장 실태와 국민연금가입 제고 방안’ (유희원, 한신실)에 따르면 종교인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이유 중 가장 높은 비중으로 경제적 원인이 열거되고 있다.

〈표 Ⅲ-21〉 국민연금 불응 이유

(단위: 명(%))

구 분	N	①	②	③	④	⑤	⑥	⑦
		N (%)	N (%)	N (%)	N (%)	N (%)	N (%)	N (%)
전 체	502	210 (41.8)	167 (33.3)	109 (21.7)	12 (2.4)	2 (.4)	1 (.2)	1 (.2)
개신교 전체	183	115 (62.8)	47 (25.7)	19 (10.4)	1 (.5)	0 (.0)	0 (.0)	1 (.5)
예장합동	88	57 (64.8)	21 (23.9)	9 (10.2)	0 (.0)	0 (.0)	0 (.0)	1 (1.1)
예장통합	62	34 (54.8)	20 (32.3)	7 (11.3)	1 (1.6)	0 (.0)	0 (.0)	0 (.0)
기장	14	7 (50.0)	5 (35.7)	2 (14.3)	0 (.0)	0 (.0)	0 (.0)	0 (.0)
감리회	19	17 (89.5)	1 (5.3)	1 (5.3)	0 (.0)	0 (.0)	0 (.0)	0 (.0)
불교 전체	200	82 (41.0)	89 (44.5)	16 (8.0)	10 (5.0)	2 (1.0)	1 (.5)	0 (.0)
조계종	158	68 (43.0)	75 (47.5)	4 (2.5)	10 (6.3)	1 (2.4)	0 (.0)	0 (.0)
태고종	42	14 (33.3)	14 (33.3)	12 (28.6)	0 (.0)	1 (2.4)	1 (2.4)	0 (.0)
천주교	119	13 (10.9)	31 (26.1)	74 (62.2)	1 (.8)	0 (.0)	0 (.0)	0 (.0)
교구	97	11 (11.3)	20 (20.6)	65 (67.0)	1 (1.0)	0 (.0)	0 (.0)	0 (.0)
수도회	22	2 (9.1)	11 (50.0)	9 (40.9)	0 (.0)	0 (.0)	0 (.0)	0 (.0)

주 : ① 보험료를 납부할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 ② 종교인이라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③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성 못느낌(교단에서 보장)
 ④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에 / ⑤ 개인적으로 노후 준비중이라서
 ⑥ 기타: 연령이 높아서 / ⑦ 기타: 기회를 놓쳐서

또한, 목회자가 교단 연금 부담금을 미납하는 이유 중 경제적 이유가 가장 높은 미납 사유로 꼽히는 점은 목회자들이 노후 보장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제도가 있음에도 현재의 부족한 경제적 여유로 미래를 대비하는 연금제도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표 Ⅲ-24〉 교단 연금(은급)제도 부담금 미납 이유

(단위: 명(%))

	소계	예장합동	예장통합	기장	감리회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30 (65.2)	18 (64.3)	7 (100)	1 (100)	4 (40.0)
공적연금제도를 통해 노후 준비	3 (6.5)	2 (7.1)	0 (0.0)	0 (0.0)	1 (10.0)
개인연금·저축을 통해 노후 준비	3 (6.5)	3 (10.7)	0 (0.0)	0 (0.0)	0 (0.0)
노후 준비 필요성 없음	1 (2.2)	0 (0.0)	0 (0.0)	0 (0.0)	1 (10.0)
은급제도에 대한 불신	7 (15.2)	3 (10.7)	0 (0.0)	0 (0.0)	4 (40.0)
기타: 부목사는 연금 가입이 안 됨	2 (4.3)	2 (7.1)	0 (0.0)	0 (0.0)	0 (0.0)
합계	46 (100)	28 (100)	7 (100)	1 (100)	10 (100)

현재도 경제적 여유가 없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미래의 불안한 경제적 상황이 목회자가 스스로 감당해야하는 짐으로 남는 점은 인정하기 싫은 현실적 상황이다. 즉, 본인 불입액을 기초로 은퇴후 연금지급액을 결정하는 일반적 연금제도는 현재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중소형교회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목회자의 노후 보장에 대한 고려는 목회자와 소속 교회가 불입하는 부담금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소속 교회가 부담하는 부담금 이외의 다른 재원을 찾아야만 해결할 수 있다.

Ⅲ. 은급재단과 연금재단

초기에는 연금재단의 명칭을 대부분 은급재단으로 사용하다가 지금은 ‘은급재단’, ‘연금재단’, ‘공제회’ 3가지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은급재단	연금재단	공제회	복지회(*)
장로회(합동)	장로회(통합)	기성 교역자	기침 교역자
장로회(고신)	기장총회	기하성 교역자연금	
기감 교역자			
예성 교역자			

(*) 기침은 교단 내부 부서로 운영

1. 은급(恩給)

일제 강점기에 정부기관에서 일하면서 매월 봉급의 2% 또는 1%를 부담금으로 국고에 납부하고, 일정한 연한을 채운 후 퇴직하면 급여의 1/3 상당액을 연금 형식의 은급(恩給)으로 지급하던 제도 (은급법 제59조, 제2절 은급급여)에서 유래된 용어다.

은급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이 매월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퇴직시 연금으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대가없이 받는 은혜로운 급여(恩給)는 아니지만 용어가 품고 있는 은혜로운(?) 의미로 인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기감의 경우 본인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은급을 보장하기로 한 1984년 총회에서의 결정이 2001년에 10년마다 1개월분 생활비를 부담하기로 변경되고, 2004년에는 3년마다 1개월분 생활비를 교역자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은급제도가 연금제도로 변경되어 왔다.

고신의 경우 은급재단임에도 많이 낸 사람이 많이 수령하는 수익자부담원칙으로 운영되면서 ‘은급’이란 명칭의 의미와는 동떨어진 일반 연금제도로 자리잡고 있다.

합동의 경우 또한 동일하게 납입금과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연금 급여를 수령하는 수익자부담 구조다.

2. 연금

연금재단으로 운영하는 통합, 기장, 예성 교단은 납입금액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수익자부담 구조이며, 노회 부담금이 별도의 추가재원으로 유입된다.

기성의 경우 2001년 이전까지는 부담한 금액과 무관하게 목회 연한에 따라 지급하는 은급금 성격이었지만 2001년 이후부터 납입금과 납입기간에 따른 수익자부담원칙의 연금급여 구조로 변경되었다.

교단연금 명칭을 ‘은급’으로 사용하던 ‘연금’으로 사용하던 현재의 교단연금 구조는 ‘은급’과는 동떨어진 많이 불입한 사람이 많이 수령하는 수익자부담 구조를 기초로 한다.

IV. 연금 기금 고갈

연금 재단의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의 은급구조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의 연금 구조로 대부분 변경되었다.

자본주의 경제논리에서 손실이 나는 경우 가장 용이한 문제 해결책은 수익을 증가시키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향후 지급할 연금수혜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용이한 해결책은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가입자인 목회자의 부담금을 늘리고 미래 예상되는 연금 지출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제시되었지만 은급제도의 성서적 배경으로 언급하는 ‘믿는 사람마다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사도행전 2:44~45) 말씀의 정신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찾아볼 수가 없다.

연금 재단의 기금이 고갈되어 가는 현 상황에서 연금제도 존재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은급의 정신’과 ‘은급제도 운영의 현실성’을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

1. 연금 운영 성격에 대한 관점

씨를 뿌린 만큼 거둔다는 자연의 법칙은 씨를 뿌린 만큼 내가 거두어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유혹하며, 이 땅에서 나의 것이라는 소유 통제 욕구를 자극한다. 미래에 회수할 것이 예상이 되어야만 현재의 재산을 미래를 위해 던질 수 있다면 부자가 창고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 두고 본인이 확보한 양식 때문에 안심하고 잠을 청하는 부자의 마음과 무엇이 다른가!

시련과 극심한 가난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나눈 마게도냐 교회의 정신인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고후8:14)는 연보(捐補)의 정신과 전적으로 대치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조직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신다는 주되심(Lordship)을 고백한다.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통로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은급재단을 나만의 노후에 대한 보장책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다른 목회자의 노후 보장책으로 은급재단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 내가 부담하는 부담금으로 얼마를 받을 것인가 보다는 내가 내는 부담금으로 나보다 어려운 목회자가 생활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이 성경적 관점이다.

그래서 각 구성원이 연금에 불입하는 부담금과 이에 비례해서 미래에 기대할 수 있는 반대 급부금과의 인과 비례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경적 은급 재단 운영원칙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말씀으로 양을 치는 목회자들로 구성된 연금재단의 운영방식에 ‘사랑의 연보 정신’이 적용될 때 강단에서 외치는 사랑의 메시지에 진정성을 느낄 수 있다.

2. 재원 조달 종류

연금재단이 조달할 수 있는 재원으로 목회자와 교회가 부담하는 불입금, 추가로 납입되는 교단 또는 교단 산하조직의 기여금, 일반 후원금으로 예상 할 수 있으나, 자본시

장 특성상 연금재단 기금이라고 특별한 수익을 추가 재원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연구원 통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미자립 중소형교회와 소속 목회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의 규모는 재정 규모 측면에서 전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여전히 적게 납부한 사람이 적게 가져간다는 전제로 볼 때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연보의 관점에서 본다면 미자립 중소형교회가 불입하는 부담금 규모의 대소 여부가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교회 또는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본인이 속한 지역(교회)의 개별 목회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 공동체, 공교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야 한다.

지역교회 또는 노회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많아 지는 것을 피하려고 실제 집행된 예산 규모를 축소보고하는 것은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을 감추고 일부만 내어 놓은 행동과 같은 행동이다.

이와는 별개로 목회자가 불입하고 목회자가 혜택을 받는 현재의 연금재단 구조에서 목회자 이외 일반 성도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정체성이 변경되어야 한다. 지역교회에서 현금한 금액이 재단으로 흘러 가기도 하지만 은금재단에 직접 후원함으로써 목회자의 노후를 지원하려는 마음이 생긴 성도들이 후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어야 한다.

재단의 정관에 후원금을 수입의 종류로 열거는 하지만 소수의 거액 후원자만을 기대하고 일반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통로와 절차, 안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지역교회를 넘어선 교회 공동체라고 하기가 어렵다.

3. 지출 측면

연금급여 지출액이 반드시 연금을 운용하고 추가로 획득한 수익으로만 지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 본다.

일반 사회의 연금 상품은 원금(기금)과 운용수익, 기대수명 등을 고려해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한다. 즉, 연금지급전까지는 불입한 원금을 기금성격으로 보아 계속 원본 불입액을 유지하는 관점이다.

이에 반해 1) 목회자 본인이 불입한 부담금 규모가 소액이어서 연금 지급액 계산시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불입한 연금을 일정한 조건하에 본인 사망시 유족연금으로 나가도록 하고, 2) 매년 교회와 교단(또는 노회)이 부담한 부담금을 소속 목회자의 목회 연한, 나이와 가족 인원 등 개인적 상황에 따라 차등을 주지만 매년 교회와 노회가 부담한 부담금 전액을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매년 연금급여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어떤 의미인가?

수입이 많은 교회이건 적은 교회이건 차별없이 수입에 비례해서 부담금을 납부하되 기금으로 유지하지 않고 모두 노후 생활비로 지급한다. 연금혜택을 받는 목회자들은 본인이 속한 교회의 부담 규모와 무관하게 본인의 생활 상황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방식이다. 큰 교회의 넉넉함이 작은 교회의 부족함을 서로 채워 목회자 서로간에 균등하게 보충되게 하는 구조다.

교회 수와 교인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매년 부담하는 금액이 감소하고, 연금급여 수급 대상자인 목회자가 계속 증가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은 은급의 정진과 연금운용 방식을 혼동한 상황에서 나오는 질문이다.

성경이 말하는 더불어 같이 함께 떡을 떼는 것은 떡이 많으면 같이 여유 있게 나누지만 나눌 떡이 적으면 조금씩 양보해서 적더라도 같이 나누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 연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많아지면서 수급자가 받는 금액이 감소한다고 제도변경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더불어 같이 나누는 사랑을 공유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다.

세상사람들이 말하는 콩 한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말을 사랑의 공동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앞뒤가 성립이 안되는 얘기다.

연금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젊은 목회자와 은퇴목회자간 반목이 발생한다. 심지어 다른 노회에서 이명 해운 목회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노회가 나온다.²⁾ 목회자들의 노후를 보장하려고 준비한 은급재단이 목회자들간 반목과 부정으로 얼룩지게 만든다. 각자의 기득권 확보여부를 의사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mammon의 숨겨진 전략이다.

2) <http://www.c-herald.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72> C헤럴드, 2020.4.13.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연금을 관리하는 금융공학적 기법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서로의 부족함을 보충하려는 연보의 정신과 실천이다

V. 연금운용원칙

1. 연금기금 운용 원칙

연금재단의 정관과 운영규정을 보면 재산 운용방법으로 다음의 경우들을 제시하고 있다.

- 금융기관에 예입
- 투자신탁 등의 수익증권 매입
- 국가, 지자체, 금융기관 직접 발행 또는 지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 매입
- 금융기관에 위탁운용
- 교회, 가입자 등의 대부
- 부동산 매매, 임대업
- 부동산 공매 및 경매 참여

위의 내용은 일반 기금관리 운용사의 규정과 다를 바가 없다.

기금을 어디에 투자하고 운용할 것인가를 정하고는 있지만 교단연금 기금이 착한 투자를 하는 지, 은급기금이 투자하면 안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등 자산 운영의 가치관에 대한 고려가 없다.

기금을 운용하면서 투자해서는 안되는 기준 등이 명시되어야만 한다.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금융기관에 위탁운용하는 펀드가 고금리 대부업체, 담배 회사 등에 투자해서 수익을 얻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경우다.

또한 연금 자산의 관리 방향이 수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위험의 최소화임을 우선적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2. 의사결정구조

은급재단은 법적으로는 재단 이사들이 경영의사결정권을 가지지만 이사들만으로 구성된 조직은 아니다. 목회자, 교회, 성도들의 참여로 구성되는 것이기에 의사결정과정에서 수급자인 은퇴 목회자, 중견 목회자, 미래 수급자인 젊은 목회자, 일반성도, 기금 관리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면서 결정하는 구조로 개선되어야 한다.

VI. 나가는 글

교단 연금재단을 운용하는 방식이 일반 금융 상품 운용 방식과 차이가 없다면, 성경적인 가치관과 운영 철학이 없다면, 굳이 교단별로 연금재단을 분리해서 별도로 운용할 필요가 없다.

모든 교단의 연금재단을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경비절감과 수익 극대화에 도움이 된다. 아니면 일반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금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다.

수입이 많은 교회의 은퇴 목회자는 연금에 대해 고민 안해도 된다. 결국 이런 논의는 현재도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목회자들의 보이지 않는 미래를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점이 논의의 본질이다.

일반 사회는 건강보험제도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동일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교회 안에 시행하는 시스템 또는 제도에 건강보험과 같이 넉넉한 자가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제도가 있는가?

자본주의적 경제논리가 아닌 사랑의 연보정신으로 운영되는 은급재단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mammon 중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결단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우리를 통해 성취되게 하는 것이다.

MEMO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2022 교단총회
참관활동 정책제안 기자회견

총회는 지속 가능한 교회를 꿈꾸는가?

일시_9.1(목) 오전 11시 장소_공간이제 (충정로 11길 20)



교회개혁실천연대

- Homepage | www.protest2002.org
- Tel | 02-741-2793